토리153은 잔디마당과 제주스러운 돌담이 있는 친환경 목조주택으로, 아파트와 주택의 장점만을 가져왔어요. 아침이 되면 새소리와 귤 밭 하우스 사이로 일출을 감상할 수 있고, 저녁이 되면 한라산 어귀로 일몰을 느낄 수 있어요. 조그만 정원과 텃밭에서 사계절 내내 자라나는 꽃들과 열매들, 채소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권도 즐겨보세요.

“온 가족이 제주 세 달 살기를 경험하고 제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일 년 동안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녔어요. 바다 가까이 전망이 좋은 곳은 땅에 염분과 습기가 있어 건강에 좋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어, 한라산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한 의귀리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을 살며 저희가 느낀 편안함과 느림의 미학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토리1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26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971-10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멋진 블랙 알루미늄 징크지붕과 화이트 스타코 벽체로 마무리한 친환경목조주택

• 제주 전통 돌담길과 귤밭 사이 일출과 한라산 어귀 일몰을 볼 수 있는 곳

• 사계절 자라나는 꽃과 열매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숙소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편안함과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은 분

• 제주 바다와 올레길 체험 및 산림욕을 통해 힐링 여행을 계획 중인 분

• 청결한 친환경 숙소를 원하는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올레길 4,5,6길 코스, 머체왓숲길, 사려니숲길, 물영아리.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이 가까이 있어요.

• 병원, 약국, 도서관, 지구대, 소방서, 대형마트 등이 차로 2~3분 거리에 있어요.

• 세스코의 전문 관리를 받는 숙소예요.